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이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경주¹, 김나은², 곽소영^{1*}
¹강동대학교 간호학과, ²한양대학교병원

The Effects of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Kyoung Ju Lee¹, Na Eun Kim², So Young Kwak^{1*}
¹Division of Nursing, Gangdong University
²Emergency Intensive Care Unit, Hanyang University Hospital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및 임상실습수행능력의 관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간호대학 7곳에 재학 중인 3학년 및 4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였으며,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2.81±0.39점(4점 만점), 대인관계유능성은 평균 3.44±0.49점(5점 만점), 임상실습수행능력은 평균 3.61±0.53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r=.498, p<.001$),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수행능력($r=.415, p<.001$), 대인관계유능성과 임상실습수행능력($r=.481, p<.001$)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에서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유능성($\beta=.424, p<.001$)과 전공만족 여부($\beta=.324, p<.001$)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32.1%($F=29.15, p<.001$)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보아 타인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있는 학생이 임상실습수행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인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nd the effects of ego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comprised 120 third and fourth-grade nursing students attending seven universiti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st to 17th, 2017,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on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as carried out using the SPSS/WIN 26.0 program. The ego resilience score of nursing students was observed to be 2.81±.39 out of four points,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score was observed to be 3.44±.49 out of five points and the clinical competence score was observed to be 3.61±.53 out of five points. The study results revealed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ego resilience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r=.498, p<.001$), ego 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e ($r=.415, p<.001$),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r=.481, p<.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were interpersonal competence ($\beta=.424, p<.001$) and satisfaction with the major ($\beta=.324, p<.001$) with R-sq. value of 32.1% ($F=29.15, p<.001$).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re confident students with interpersonal competence became even more confident with improved clinical compet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a strategy to reinforce interpersonal competence to improve the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Skill, Clinical, Competency,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Kwak(Gangdong Univ.)

email: kwaksy@gangdong.ac.kr

Received August 12, 2021

Revised September 6, 2021

Accepted December 6, 2021

Published December 31, 2021

1. 서론

간호대학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임상실습은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가치관, 태도, 간호전문직관을 학습하고, 성공적인 임상실습교육은 훌륭한 간호사 양성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나 임상실습 과정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역할 모호함 등의 부정적인 경험을 하며 임상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주어진 상황에서 스스로를 관리하고 대처하는지에 관한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임상실습의 효과 및 성취도가 달라질 수 있다[2]. 이러한 관점에서 성공적인 임상실습교육을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중점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융통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 간호사는 복잡한 임상 현장과 다양한 대인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적응하도록 도와준다[4].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대학생들도 임상실습 시 대상자, 보호자, 타 실습생, 의료보조인력, 의료인 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불안, 학습동기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데[5], 이러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유능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의와 규범을 적절하게 준수하면서 상황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등 타인과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6]. 임상실습 중인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현장, 가족, 친구, 학교, 사회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렇게 복잡한 관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대인관계를 맺는 것이 임상실습 성과를 결정할 수 있다[7]. 또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은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대상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하므로[8], 대인관계유능성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역동적으로 실습수행능력을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은 임상실습 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기술, 태도를 적용하여 능숙하게간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9] 임상실습수행능력이

우수하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임상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다[1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임상실습만족도, 임상실습스트레스, 비판적 사고성향,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등[11-13]으로 자신감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난 경우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이 간호 임상현장에서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대학생활적응[14], 학업스트레스[15] 등이 있었으며 자아탄력성과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확인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한편 임상실습 현장은 간호사, 의사,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이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에 관한 연구로는 자기조절학습능력, 학업스트레스, 문제해결능력 등[15-17] 주로 학업 및 학습과 관련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임상실습수행능력과 대인관계유능성을 본 연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들이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이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7개 대학교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중 임상실습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온라인 설문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URL 주소는 학과 대표를 통해 전달하였으며, URL 주소 배부 시 서면으로 된 연구설명문과 동의서를 함께 공유

하였으며 연구설명문의 내용으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익명성 보장, 연구자 연락처 등을 기재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경우 URL 주소를 클릭하여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안내문구를 반드시 읽고 동의해야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 조사에 불응하거나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온라인 설문은 무기명으로 수집하여 대상자의 비밀이 보장됨을 안내하였다. 총 150명에게 URL 주소가 배부되었으며 미응답자와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대상자는 총 120명이었다. 연구 표본 크기는 Cohen[18]의 표본 크기 공식에 따라 회귀분석에서의 중간효과크기인 .15, 양측검정 유의수준 .05, 검정력 .85, 예측변수 4개(전공만족도,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를 기준 [2,19-21]으로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산출 결과 최소 표본의 수가 95명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탄력성

Block과 Kremen[3]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 Scale, ER)를 Yoo와 Shim[22]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성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개 하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총 4점 만점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고, Yoo와 Sh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67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83이었다.

2.3.2 대인관계유능성

대인관계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Buhrmester 등[7]의 대인관계유능성 질문지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Han과 Lee[23]가 한국 대학생에 맞게 번안하고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관계 형성 관리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 자기 개방 3문항 등 5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못함' 1점, '못하는 편' 2점, '보통' 3점, '잘하는 편' 4점, '매우 잘함' 5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과 Lee[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다.

2.3.3 임상실습수행능력

임상실습수행능력 측정도구는 Schwirian[24]의 six-Dimension Scale을 기반으로 Lee 등[25]이 개발한 임상실습수행능력 측정도구를 기초로 Choi[26]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간호교육/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의사소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 등 5개 영역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못함' 1점, '못하는 편' 2점, '보통' 3점, '잘하는 편' 4점, '매우 잘함'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의 척도로 측정하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25]이 개발한 전체 문항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Choi[26]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2,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2.3.4 일반적 특성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이외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요인은 선행 문헌[2,19-21]을 고찰하여 성별, 연령, 임상실습기간, 종교, 전공만족도, 외모만족도, 동료와의 관계, 임상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 유무를 포함하였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test로 확인하였다.
-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평균 2.81 ± 0.39 점(4점 만점), 대인관계유능성은 평균 3.44 ± 0.49 점(5점 만점), 임상실습수행능력은 평균 3.61 ± 0.53 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Degree of Egoresili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N=120)

Variance	Mean \pm SD	Range
Egoresilience	2.81 \pm .39	1~4
Interpersonal relationship	3.13 \pm .40	
Vitality	2.82 \pm .52	
Emotional regulation	2.91 \pm .52	
Curiosity	2.66 \pm .56	
Optimism	2.59 \pm .61	
Interpersonal competence	3.44 \pm .49	
Formation of relationship	3.43 \pm .70	
Claim of right and displeasure	3.11 \pm .62	
Caring others	3.77 \pm .64	
Conflict management	3.53 \pm .59	
Appropriate disclosure	3.28 \pm .81	1~5
Clinical competence	3.61 \pm .53	
Nursing process	3.62 \pm .52	
Nursing skills	3.49 \pm .56	
Teaching in nursing/coordinating	3.67 \pm .63	
Interpersonal relationships/communication	3.61 \pm .60	
Professional development	3.69 \pm .6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성별($t=2.40, p=.018$), 전공만족도($t=3.61, p<.001$), 외모만족도($F=10.9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가 만족하지 않는 학생에 비해,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그렇지 않

은 학생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외모만족도($F=5.95, p=.003$), 임상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 유무($t=-2.73, p=.007$)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외모에 불만족하는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가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대인관계유능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t=4.70, p<.001$)와 외모 만족도($F=3.33, p=.039$)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외모에 불만족하는 학생에 비해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았다(Table 2).

3.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임상실습수행능력은 자아탄력성($r=.415, p<.001$)과 대인관계유능성($r=.481,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r=.498, p<.001$) 역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대상자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공만족여부, 외모만족도,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을 독립변수로, 임상실습 수행능력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 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626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647~.897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IF)은 1.115~1.546으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 대인관계유능성($\beta=.424, p<.001$)이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였으며 그 다음 전공만족여부($\beta=.324, p<.001$)가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전체변수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대한 설명력은 약 32.1%로 나타났다($F=29.15, p<.001$)(Table 4).

Table 2. Difference of Egoresili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0)

Characteristics		n(%)	Egoresili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competence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24(20.0)	2.97±.40	2.40 (.018)	3.47±.56	0.36 (.718)	3.64±.73	0.31 (.755)
	Female	96(80.0)	2.77±.37		3.43±.47		3.60±.47	
Age	21~22	49(40.8)	2.76±.34	1.10 (.337)	3.34±.51	1.93 (.150)	3.50±.52	2.38 (.097)
	23~24	42(35.0)	2.81±.38		3.52±.44		3.62±.50	
	25≤	29(24.2)	2.89±.45		3.49±.49		3.77±.57	
Clinical training experience	2 semesters	28(23.3)	2.80±.32	0.03 (.974)	3.46±.41	0.97 (.381)	3.51±.51	2.84 (.062)
	3 semesters	32(26.7)	2.80±.37		3.34±.59		3.48±.49	
	4 semesters	60(50.0)	2.82±.43		3.49±.46		3.72±.54	
Religion	Yes	70(58.3)	2.85±.42	1.53 (.128)	3.45±.47	0.37 (.711)	3.60±.55	-0.19 (.849)
	None	50(41.7)	2.74±.32		3.42±.51		3.62±.51	
Satisfaction with major	Satisfaction	63(52.5)	2.92±.37	3.61 ($<.001$)	3.52±.51	1.91 (.058)	3.81±.47	4.70 ($<.001$)
	Unsatisfaction	57(47.5)	2.68±.36		3.35±.44		3.39±.51	
Satisfaction with † appearance	Satisfaction ^a	53(44.2)	2.97±.40	10.92 ($<.001$) b,c<a	3.59±.46	5.95 (.003) c<a	3.74±.57	3.33 (.039) c<a
	So so ^b	48(40.0)	2.72±.35		3.39±.37		3.53±.51	
	Unsatisfaction ^c	19(15.8)	2.58±.23		3.17±.67		3.44±.38	
Satisfaction with clinical training	Satisfaction	54(45.0)	2.90±.41	2.80 (.065)	3.48±.45	0.39 (.675)	3.73±.52	2.47 (.089)
	So so	46(38.3)	2.74±.34		3.39±.54		3.52±.55	
	Unsatisfaction	20(16.7)	2.72±.39		3.46±.47		3.50±.47	
Relationship with classmate	So so	15(12.5)	2.83±.47	0.22 (.824)	3.28±.48	-1.34 (.182)	3.44±.76	-1.36 (.175)
	Good	105(87.5)	2.80±.37		3.46±.49		3.63±.49	
Relationship problem on clinical training	Yes	84(70.0)	2.77±.36	-1.60 (.113)	3.36±.48	-2.73 (.007)	3.57±.54	-1.21 (.175)
	None	36(30.0)	2.89±.43		3.62±.46		3.70±.50	

† scheffé test.

Table 3. Correlations among Egoresili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linical Competence (N=120)

	Egoresili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competence
Egoresilience	1		
Interpersonal competence	.498 ($<.001$)	1	
Clinical competence	.415 ($<.001$)	.481 ($<.001$)	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N=120)

Spec.	B	SE	β	t	p
Constant	1.837	.286		6.419	$<.001$
Egoresilience	.187	.129	.136	1.455	.148
Interpersonal Competence	.463	.084	.424	5.535	$<.001$
Satisfaction with Major †	.342	.081	.324	4.219	$<.001$
Satisfaction with † appearance	.031	.087	.029	.358	.721

R²= .333 Adjusted R²= .321 F=29.145 p<.001

† Satisfaction with major (0=Unsatisfaction, 1=Satisfaction)

† Satisfaction with appearance (0=Unsatisfaction, 1=Satisfaction)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학생의 자아탄력성은 4점 만점에 평균 2.81 ± 0.39 점이었고, 하위영역은 대인관계, 감정통제, 활력성, 호기심, 낙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조사한 Cho[27]의 평균 2.77점, Park과 Kwon[10]의 평균 2.80점, Shin과 Park[28]의 평균 2.80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보통 이상의 긍정적인 수준을 갖고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유능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44 ± 0.49 점이었으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대인관계유능성을 조사한 Kim 등[29]의 3.33점과 Cho[30]의 평균 3.34점과 비슷하였다. 대인관계유능성의 하위 영역에서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갈등 관리, 관계 형성관리 및 개시, 적절한 자기 개방,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주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환자, 보호자 등 타인을 배려하도록 학습되어 있으며 적절하게 자기를 개방하거나 권리나 불쾌함을 주장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Park과 An의 연구[31]에서도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소극적으로 행동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존감 저하에도 영향을 미치며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31]. 자신감 있게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자기주장행동은 간호사의 업무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32] 간호대학생들이 부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조직은 간호대학생들의 이러한 주장행동에 대해서 포용하고 공감해주는 환경과 지지체계를 갖추는 것이 요구된다. 임상실습수행능력은 5점 만점에 평균 3.61 ± 0.53 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수행능력을 조사한 Cha[33]의 평균 3.46점 보다는 높고 Kim[34]의 평균 3.92점 보다는 낮게 나타나 대상자에 따라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실제로 임상실습수행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측정방법이 아닌 자가 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여 정확하게 수행능력이 평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제 임상실습수행능력을 측

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또 실습 경험이 많을수록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내 시뮬레이션 교육의 활성화, 임상 현장을 재현한 시설에서의 통합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10].

본 연구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성별, 전공만족도와 외모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수준을 조사한 연구[35]에서도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연구[36]에서도 남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 또 대인관계유능성과 임상실습수행능력도 남학생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들이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고, 외부환경에 대한 대처방법이 적극적이며 같은 환경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비율이 여성 80%, 남성 20%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기가 조심스러우며, 간호학과 지원동기, 성격, 성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발생하는지 재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 특히 여학생의 자아탄력성 향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공만족도에 따라서는 전공에 만족하는 경우 만족하지 않는 경우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았는데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임상실습현장에서의 불안감이 적으며 실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외모 만족도에서는 외모에 만족하는 경우 외모에 불만족하는 경우 보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인 외모의 준수함 정도가 아닌 본인이 외모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외모에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으면 이것이 자존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인관계유능성은 외모만족도, 임상실습에서 어려웠던 관계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외모에 매우 만족하는 경우 외모에 불만족하는 경우 보다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모만족도,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대인관계능력의 상호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제시한 Kim[21]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외모 만족도는 신체이미지, 주관적 외모, 외모

개선 욕구 등에 영향을 주며[21],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이성교제, 취업, 결혼 등에 대한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동료와 관계가 좋고 임상실습에서 어려운 관계가 없는 경우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를 통하여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가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원만한 대인관계는 개인의 사회적 기능과 심리적 안녕에 필수적이고 동료와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한 문화 내에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 교육과정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인간관계 관련 인문·교양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37]이 임상실습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임상실습수행능력은 전공만족도, 외모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실습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실습 주체가 자신임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실습에 임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실습에 참여함으로써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감을 갖게 되어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았는데 외모만족도와 임상실습수행능력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추가 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경우 임상실습수행을 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간호대학생들의 긍정적인 신체상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 내면의 가치와 외면의 가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등 건강한 자아존중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 간에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았으며 이 둘 변수 모두 임상실습수행능력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맥락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38]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도 본 연구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는 것이 임상실습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유능성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은 것이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에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수행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개인의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인관계유능성과 전공만족여부가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대인관계유능성이 뛰어난 간호대학생은 타인을 배려하고 의사소통능력이 우수하며, 학교생활을 잘하고 전공에 대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6,39] 이러한 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도 환자, 보호자, 간호사, 타 보건의료인력 등을 배려하고 의사소통하며 친화력 있는 실습을 수행하므로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뛰어난 것은 선행연구[10,19] 결과와 일치하며, 전공만족도가 실습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감이 높으면 임상실습현장에서의 불안감을 감소시켜 실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실습수행능력이 높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기 위해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대처기술이 요구되며 특히 임상실습 중 해당 병동 간호사와의 관계 대처방안 및 전략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과 자체 프로그램이나 간호전문직관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유능성, 임상실습수행능력 간에 순 상관관계가 있고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대인관계유능성과 전공만족도라는 것을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임상실습수행능력을 자가보고식 설문으로 측정하여 실제 임상실습수행능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일부 간호대학의 재학생들로 한정하여 연구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하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이 실제 간호사가 되었을 때의 임상수행능력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상실습수행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실제로 간호사로서의 역량이 뛰어난지 추적 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대인관

계유능성 및 이들 변수가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대인관계유능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는 변수로 파악되었으며, 전공만족여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효과적임을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또한 권리나 불쾌함에 대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대처기술이 요구되며 특히 임상실습 중 해당 병동 간호사와의 관계 대처방안 및 전략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을 시사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탐색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수행능력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중재에 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외모만족도가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유능성 및 임상실습수행능력에 도움이 되므로 간호대학생의 외모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임상실습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H. M. Yang, Y. J. Lee, "Effects by incivility experienced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 on career identif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2, pp.637-648, Dec.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2.057>
- [2] K. E. Kim, B. 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for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85-896, Oct.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10.885>
- [3] J.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 l connections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70, pp.349-361, Feb.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4] K. Tusaie, J. Dyer, "Resilience: A historical review of the construct", *Holistic Nursing Practice*, Vol.18, No.1, pp.3-8, Feb. 2004. DOI: <https://doi.org/10.1097/00004650-200401000-00002>
- [5] S. K. Hwang, Y. J. Le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ocial anxie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4, pp.518-527, Nov. 2015.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4.518>
- [6] B. H. Spitzberg, W. R. Cupach,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1989.
- [7]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H. T. Reis,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Dec. 1988.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55.6.991>
- [8] S. J. Park, S. J. Shin,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ing effica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Simulation in Nursing*, Vol.6, No.2, pp.15-25, Dec. 2018. DOI: <https://doi.org/10.17333/JKSSN.2018.6.2.15>
- [9] C. Barret, F. Myrick,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preceptor",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7, No.2, pp.364-371, Feb. 1998.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1998.00511.x>
- [10] Y. S. Park, Y. Kwon,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3, pp.341-350, Aug. 201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11] M. J. Shin, Y. E. Chun,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2, pp.19-32, Feb.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19>
- [12] J. J. Yang, "The study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1, pp.443-449, Feb. 2019. DOI: <https://doi.org/10.17703/JCCT.2019.5.1.443>
- [13] H. J. Ju,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stress, performance ability, satisfaction, and critical thinking on nursing professional self conce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8, pp.213-224, Aug. 2017. DOI: <https://doi.org/10.14400/JDC.2017.15.8.213>
- [14] J. S. Kim, H. N. Kim, "Effects of character,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nneagram studies*, Vol.13, No.2, pp.7-28, Dec. 2016.

- [15] E. K. Byun, M. Y. Kim, "Effect of ego-resilience, adult attachment, interpersonal competence on the academic str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2, pp.223-230, May. 2020.
DOI: <https://doi.org/10.17703/JCCT.2020.6.2.223>
- [16] H. K. Cho,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2, pp.475-483, Dec.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2.475>
- [17] S. N. Kim, Y. M. Kim, S. Y. Lee,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2, pp.61-72, Feb.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61>
- [18] J.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 pp.407-414.
DOI: <https://doi.org/10.4324/9780203771587>
- [19] E. J. Lim, M. H. Lee, "Convergence relationship among interpersonal competence, clinical stress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5, pp.279-286, May.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5.279>
- [20] E. H. Kim, "Relationship of anxiety, empathy, ego-resilien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8, No.8, pp.326-337, Aug. 2018.
DOI: <https://doi.org/10.5392/JKA.2018.18.08.326>
- [21] H. J. Kim, "The effects of sociocultural attitudes toward appearance, appearance satisfaction, body-image, and self-esteem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62-70, Apr. 201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2.18.1.062>
- [22]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16, No.4, pp.189-206, Dec. 2002.
- [23] N. R. Han, D. G. Le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n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22, No.1, pp.137-156, Feb. 2010.
- [24] P. M. Schwirian,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nurses : A multidimensional approach", *Nursing Research*, Vol.27, No.6, pp.347-351, Nov. 1978.
DOI: <https://doi.org/10.1097/00006199-197811000-00004>
- [25] W. H. Lee, J.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A study of instrument development for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ience*, Vol.13, No.1, pp.17-29. 1990.
- [26] M. S.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linical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55-57, 2005.
- [27] J. H. Cho,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p.12, 2014.
- [28]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5636-5645, Nov. 2013.
DOI: <https://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9] S. N. Kim, Y. M. Kim, S. Y. Lee,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ego stat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2, pp.61-72, Feb.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61>
- [30] H. K. Cho, "The influence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due to nursing students'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2, pp.475-483, Dec.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12.475>
- [31] H. J. Park, H. J. An,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n Nunchi in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48-57, Feb. 2019.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19.25.1.48>
- [32] M. J. Chae, H. J. Jung, "The influence of self-assertive behavior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on empower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Vol.12, No.3, pp.973-988, June. 2021.
DOI: <https://doi.org/10.22143/HSS21.12.3.69>
- [33] J. A. Cha, *Correlation between for nursing students i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pp.14, 2013.
- [34] H. S. Kim,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16, No.1, pp.64-76, March. 2002.
- [35] Y. M. Lee, H. Y. Min, Y. J. Lee, "The impact of parents' marital conflict and adult attachment on college students' ego-resiliency",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22, No.4, pp.63-72, Aug. 2004.
- [36] M. O. Chae, "Ego resil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job seeking stress of seni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4, pp.229-238, Apr.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4.229>

- [37] J. I. Yang, H. H. Lee, "The impact of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control of college student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career maturity : focus on airline services-related major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9, No.4, pp.139-161, Dec. 2019.
DOI: <https://doi.org/10.35273/jec.2019.9.4.007>
- [38] B. N. Kim, H. S. Oh, Y. S. Park, "Study of nurses' resilience, occupational stress and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0, No.1, pp.14-23, May. 2011.
DOI: <https://doi.org/10.5807/kiohn.2011.20.1.014>
- [39] M. Y. Woo, H. J. Bae, S. J. Hong, "The convergenc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competence on communication skill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2, pp.401-408, Dec.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2.401>

곽 소 영(So Young Kwak)

[정회원]



- 2012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20년 2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시뮬레이션 교육, 기초간호학, 간호교육

이 경 주(Kyoung Ju Lee)

[정회원]



- 201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1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
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인적자원관리, 보건정책, 건강증진

김 나 은(Na Eun Kim)

[정회원]



- 2019년 2월 : 강동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19년 5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병원 응급중환자실 간호사

<관심분야>

간호대학생, 응급중환자